일본 면방업계

“기계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제품”만이 살 길

예전의 방적기계는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어 있어 다루기가 쉽지 않아 기계를 운전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였지만, 최근에는 기계의 성능이 향상되어 다루기 편하고 숙련이 없어도 쉽게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평범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기술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게 되어, 기술자는 생산관리나 종업원의 작업감독만 하고 생산은 기계가 다 해 준다는 경영층마저 있을 정도로 기술자의 존재가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섬유기계업자들은 방적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신기술을 가미하여 최신 방직기계를 만들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팔고 있다. 중국의 면방적업은 이러한 최신 우수 시설을 갖춤으로써 급속도로 강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일본의 방적업계는 보고 있다.

성능이 향상된 일본방적기계를 도입하여 가동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값싼 제품을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자, 일본 방적 산업은 시설규모를 축소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면방업계가 앞으로 갈 길은 “개발도상국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기계로 생산하려 하여도 쉽게 만들 수 없는 신상품”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다. 일본 면방적업계에는 아직도 그러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력이 있지만, 이것조차 틀림없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증할 수도 없다. 하지만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방적기술자들이 자신의 우수

한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상품을 위하여 기술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의식을 바꾸어 새기술 · 새상품을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상품화하며, 판매 부문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수요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일본 면방적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 중에는 기술자의 능력이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으나 이 능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몇몇 방적회사에서는 잠자고 있는 능력을 일깨워 “기계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신상품”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어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